

기분 좋은 상상

글 _ 배준우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연구원

초등학교 이후로 축구를 하게 된 건, 박사과정 1년이 끝나던 즈음이었다.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운동은 좀 못할 것 같은 나의 편견을 아주 자연스럽게 깨 주신 분은 다름 아닌 나의 지도교수님이었다. 그 분은 캠퍼스 내의 50개의 팀으로 구성된 축구 리그에서 우리 연구소 팀이 2등을 하도록 이끌었고, 또한 여러 학회에 참가하고 연구 그룹들에 방문 연구를 하는 동안 축구 경기를 주관하고 같이 경기를 하신다. 지도교수님의 그런 면을 알게 된 후에는, 연구를 잘 하려면 운동을 잘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축구가 어쩌면 특별히 중요한 운동일 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혹시나, 축구를 잘 하게 되는 순간,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서 더욱더 연구를 잘 하게 되지 않을까. 길의 끝에 대해서는 그 곳에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기에. 그래서 축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마침 바르셀로나 축구 클럽팀(F.C. Barcelona)이 2006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광경도 보았다. 그 때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잠시 뒤로 한 채, 거리로 뛰어나와 “A Por Ellos Oe” 라고 외치며 서로 기뻐했던 모습에 대한 느낌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축구를하기로 결심했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기로 했다. 물론 나중에, 연구소의 팀으로 참가해서 캠퍼스 리그에서 뛸 계획이었다. 무조건 열심히 뛰었다. 나중에 친구들이 해 준 얘기로는, 경기장에서 내가 제일 많이 뛰는 것 같다고 했다. 뛰고 나

면 발에는 물집이 잡히는 건 일도 아니었고 발톱도 부러지고 질퍽거리면서도 끝까지 하자고 마음 먹고 매주 축구를 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리고는, 리그 팀들의 연습 경기에 참여했는데, 지도교수님과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는 의외로 단순했고, 오히려 축구장에서 가장 많이 뛰는 두 사람은 바로 나와 어느 중국인 연구원이었다. 그런 후에 축구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꽤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이 뛰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축구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뛰었고, 또 팀이 이기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이 뛰는 게 필수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많이 뛴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잘 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다. 패스를 하더라도, 공간을 비우더라도, 혹은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오히려 그들이 집중한 부분은 공을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패스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러운 공의 흐름, 그 자체를 즐겼다. 많이 뛰는 것 자체가 축구에서 요구되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이제 좀 새롭게 느껴졌다.

학회 때문에 얼마 전 바르셀로나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다시 축구를 하게 되었다. 요즘은 축구를 할 때에 한두 번 정도 하는 탓에 예전의 체력은 못 되지만, 내 눈은 더 좋아진 것 같다. 패스도 더 잘 하고, 덜 뛰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뛰면서 서로의 눈도 보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한다. 공격과



▲ 2006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파리에서 열렸다. 바르셀로나 축구 클럽팀은 우승했고 위의 우승컵은 캄노우(Camp Nou)라고 불리는 클럽팀의 스타디움 내의 박물관에 있다.



◀ 바르셀로나 축구 클럽팀 스타디움, Mes Que Un Club 은 까탈란(Catalan) 이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 언어인데, 영어로는 More than a club 이다.

수비를 번갈아 해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풀키퍼를 하고 있으면 전체 흐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다시금 좋은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하면, 팀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한 팀으로서 어떻게 움직

여야 할 지도 조금씩 느껴지게 된다.

재미있는 생각이지만, 요즘은 연구하는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다. 언젠가는 지도교수님과도 대등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 을 해 본다. [KIAS](#)